

第21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新たな脅威（エマージングリスク）・新たな安全保障（エマージングセキュリティ）-これからの政策への挑戦-

제21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새로운 위협(이머징 리스크)·새로운 안전 보장(이머징 시큐리티)-향후 정책에 대한 도전-」



2023年4月22日（土）14:00～17:00

開催方法：渥美財団ホールおよびZoomウェビナー

言語：日本語・韓国語（同時通訳）

2023년 4월 22일(토) 14:00~17:00

방식: 아쓰미국제교류재단홀 및 Zoom 웨비나

언어: 일본어·한국어(동시 통역)

金雄熙先生（仁荷大学副学長）
による総合司会のもと、
フォーラムが始まりました。

김응희 선생님 (인하대 부총장)의
종합사회로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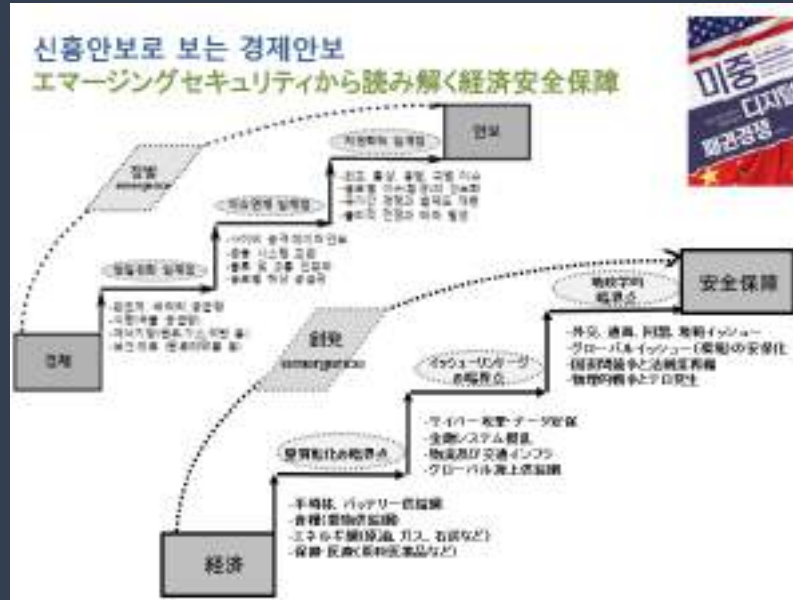
財団法人未来人力研究院の
徐載鎮院長による開会のご挨拶

재단법인 미래인력연구원
서재진 원장님의 개회사



基調講演 1
 金湘培先生 (ソウル大学政治外交学部)
 「エマージング・セキュリティー、新たな安全保障パラダイムの浮上」

기조강연1
 김승배 선생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머징 시큐리티,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



何が 제일 무섭습니까?
 何が一番怖いですか?

안보(security): 폭스나 사드내의 문제
 安全保障: 死ぬか生きるかの問題

여전히 「전쟁」이 제일 무섭습니까?
 -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까? 제2의 한국 전쟁이 발생할까? 제2의 침략전쟁이 터질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それでも 「戦争」が一番怖いですか?
 - アメリカは北朝鮮を攻撃するのだろうか? 第2の韓国戦争が起きるのか? 第2の日本戦争が起きるか? 米中が戦争を繰り出す可能性は? 第三次世界大戦の可能性は?

일할 오늘 더 무서운 것은 없을까요?
 - 전통안보의 문제(예: 핵)가 여전히 많은 잠재적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위협?
 - 신종안보 사례: 코로나19, 지구온난화, 미생안전, 제정 등

今、より怖いことはないでしょうか?
 - 伝統安全保障の問題(例: 核)が依然として懸念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新しい種類の変化を念頭に置いて準備を講ずる必要はないでしょうか?
 - エマージングセキュリティーのケース: コロナ19, 地球温暖化, 大気汚染, バイキング など

エマージングセキュリティーの特徴を「突発的」「急速拡大」と分析し、グローバル化・ネットワーク化を通じて国境を超えるマクロリスクに対し国家単位を超えて安全保障を構築する必要性を指摘されました。

이머징 시큐리티의 특징을 ‘돌발적’, ‘급속 확대’로 분석하면서, 글로벌화, 네트워크화로 국경을 넘는 거시 리스크에 대해, 국가 단위를 넘어선 안보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基調講演 2

鈴木一人先生（東京大学公共政策大学院）
「日本における経済安全保障をめぐる議論」

기조강연2

스즈키 가즈토 선생님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일본의 경제 안보를 둘러싼 논의”



米中対立を背景に政治的目的の手段としての経済、武器の相互依存が進む一方、国家間の経済対立も起きている。

こうした脅威の中でも際競争力、経済的・技術的優位性の確保のために研究開発の促進、および技術管理、輸出管理の強化が重要であり日本におけるその現状を報告した。

미중대립을 배경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서의 경제, 무기의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한편, 국가 간 경제 대립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국제 경쟁력, 경제적·기술적 우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관리, 수출관리의 강화가 중요하며, 일본의 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休憩の時間

4年ぶりに対面開催となった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韓国から渥美財団ホールへ登壇者をお迎えして、フォーラムの合間にも活発な議論が会場のあちらこちらで行われました。

휴식 시간

4년만에 대면 개최가 이뤄진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아쓰미재단홀에서 한국으로부터 오신 등단자분들을 맞이해, 포럼 중간에는 회의장 이곳 저곳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お二人の基調講演を受けて、4名の先生方からコメントの発表がありました。
두분의 기조강연에 대해 네 분 선생님의 코멘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コメント1

李元徳先生（国民大学校社会科学大学）
「日本における経済安全保障をめぐる議論」

코멘트1

이원덕 선생님（국민대 사회과학대）
“일본의 경제 안보를 둘러싼 논의”

論点1

日本における＜経済安全保障＞に関する議論は、＜総合安全保障論＞の復活という性格を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論点2

＜新興安保＞は＜Human Security＞とは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のか

論点3

＜新興安保論＞や＜経済安保論＞の観点でみた場合、日韓関係の現在をどのように評価するのか、また日韓関係の未来ビジョンはどのように設計すればよいのか

논점1

일본의 ‘경제 안보’에 관한 논의는 ‘종합안보론’의 부활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닌가

논점2

‘신흥안보’는 ‘인간 안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논점3

‘신흥안보론’과 ‘경제안보론’의 관점으로 볼 경우, 한일관계의 현재를 어떻게 평가할지,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 비전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コメント2
西野純也先生（慶應義塾大学法学部政治学科）

코멘트2
니시노 준야 선생님 (게이오대 법학부 정치학과)



「インド太平洋」での連携の模索

- ・2023年3月 日韓首脳共同会見
- ・岸田首相:「この歴史の新段階において、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実現する重要性について確認し、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を守り抜くため両国が力を合わせていく必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
- ・尹大統領:「韓国の『自由、平和、繁栄のインド太平洋戦略』と日本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推進過程で、国際社会と緊密に連携し協力していく」



(写真出所)首相官邸ウェブサイト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303/16korea.html

「인도태평양」에서의 연대 모색

- ・2023년 3월 한일정상 공동회견
- ・기시다수상:「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동지국이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
- ・윤대통령:「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가야」

(사진출처)수상관저 웹사이트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303/16korea.html

参考: 日韓の未来のための協力

- ・両国の国力が自由、平等、法に基づいた普遍的な価値を基礎とする自由民主主義制度であることに共通な意味、価値と目的を有して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という共同目標へ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ようとしている。
- ・両国が対外的に協力的に政治と経済連携のために両国間の、民間リーダーは力を合わせておけば、両国の責任ある協力を促して、両国の若い世代の連帯らしい未来のため両国共々努力を怠らぬ。



참고: 한일의 미래를 위한 협력

- ・이동시대의 평화와 번영이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보편적인 의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음
- ・일본, 세대는 학문적인 교류와 의사소통을 위한 양국 청년인 리더십을 함양하여 한, 한국의 학생들은 정치·경제·문화의 많은 세대의 청년 리더십을 위한 동기를 잃고 협력을怠랄 것



1998年以降の日韓首脳会談・共同記者会見の内容をふりかえり、連帯と協力を通じて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という共同目標へ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ようとしてきたと指摘。両国の関係を担う若手研究科へもエールを送った。

1998년 이후의 한일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되돌아보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목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려 해왔다고 지적. 양국 관계를 짊어질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응원을 보냈다.

コメント3
林 恩廷先生 (国立公州大学国際学部)

코멘트3
임은정 선생님(국립공주대 국제학부)



한국과 일본의 공동된 도전

- 한국과 일본은 모두 동북아시아 내전 구도에서 위국중의 동맹을 기반으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음.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관계를 기본적으로 하는, 즉 이른바 "Hub-and-Spoke" 구조
- 남은 자질은 부족하지만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달성
- Pyeong壤핵 Model
-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적 부흥이 두 나라는 경제는 기회가 되었음.

韓国と日本の共通の挑戦

- 韓国と日本は共に冷戦アリアンテ地帯の中核としてアメリカとの同盟を基盤に国家の発展と経済成長を達成してきた。
- アメリカを中心とした同盟関係を基本軸とする、いわゆる「Hub-and-Spoke」の構造
- 大規模貿易は不足しているが、製造業と輸出を基盤に経済成長を遂げている。
- 中国の改革開放と経済的 부흥이 두 나라는 경제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된 도전

- 미국은 양국의 경제 성장
 - 1980년대 기술 협력과 투자 지원, 1990년대 이후의 경제적 지원
 - 중요한 역할
-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위험 균형추적권 유지와 함께 상호안정적인 위협의 증가
- 동맹국 리스크
 - 미국 내분정치적 불안정성
 - 미국이 북한 개혁(Reform)을 지원 할 수 없게 됨(Life-saving)
- 중국 및 사회구조적 변화
 - 중국 개혁(Reform)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

韓国と日本の共通の挑戦

- アメリカと中国の戦略戦争
 - 冷戦時代の対峙から冷戦後、製造業を基盤とした経済成長
 - 冷戦後は対峙から冷戦後、製造業を基盤とした経済成長
 - サブプライムローン問題
- 北朝鮮、中国、ロシアからの伝統的軍事同盟の脅威とともに新興国家の脅威も増加
- 同盟国リ스크
 - アメリカ内閣政治の不安定性
 - アメリカが北朝鮮の改革(Reform)을 지원 할 수 없게 됨(Life-saving)
- 人口と社会構造の 변화

アメリカの同盟国として歩んできた日韓両国の共通した課題に焦点を当て、人口と社会構造の問題や米中の戦略戦争との相対など、解決すべき課題に共に取り組む姿勢の重要性を説明。

미국의 동맹국으로 자리해온 한일양국의 공통 과제에 초점을 맞춰, 인구와 사회구조 문제나 미중 전략경쟁과의 상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함께 해야 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

コメント4
金 崇培先生 (国立釜慶大学人文社会科学部)

코멘트4
김승배 선생님 (국립부경대 인문사회학부)



<p>再び「安保」に対する問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に存在する問題を認知しながらも、同盟国における戦争責任問題は「い」→「新憲法草案（戦争のな）改定」の要否 • 同盟国において投訴しながらも自国主権侵害であった日独は、到底では「自由」を認めないとする → リベラリズムは社会を基礎とする • 複雑化する「安保」概念に対し、国内かつ国際関係におけるリベラリズム的思考や実践の意義を説明した <p>• 質問項目</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リベラルな国際秩序の創設」がもたらすシステムへの期待を意味しない場合、何がその代議士的時代精神、またはそのような国際秩序が必要とされるのか (2) 多くの「安保」問題を考慮しながらも、日独が北東部を先取り、また同盟国対面を「安保」問題と見なすか 	<p>다시금 '안보'에 대한 물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盟 건 존재하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영구한 전쟁을 지 가능하다는 믿음 → 국가의 평화 전쟁 발발 시대의 필요 • 同盟국에 투訴하면서도 자국주권침해에 속한 항일군, 항일 '자유국'을 승인함으로써 인정 → 리베럴리즘은 '안보' 실현을 기점으로 할 • 복잡해지는 '안보' 개념에 대해 국내 및 국제관계에서의 리베럴리즘적 사고와 실천은 주의하지 않을 <p>• 질문항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평화 국제질서의 현재와 같은성 리베럴리즘에 대한 기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의 시대정신 혹은 어떠한 국제정세가 요구되는지 (2) 수많은 안보, 영토를 고려하면서도 영토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혹은 영토가 없는 안보의 의미가 한-동일한지
---	---

<p>国際関係におけるリアリズムとリベラリズ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リアリズ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国家は国際体制をアナーキーと見なし、自国の生存を最優先 (2) 軍事力、国益、国家間のバランス・オブ・パワー (3) 歴史を重視するため道徳や倫理という価値観を回避 • リベラリズ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国家行為の多様性を認め、国家間の協力も可能とみなす (2) 多国間や多極化、経済、環境、人権、レゾームなどを重視 (3) 国家を主要なアクターとしつつ、市民社会やNGOなどの役割も重視 	<p>국제관계에서의 리얼리즘과 리베럴리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얼리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는 국제체제를 무정부상태(아나키)로 간주하고, 자국의 생존을 가장 중요시함. (2) 군사력, 국익, 국가간 힘의 균형 (3)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도덕과 윤리라는 가치를 회피 • 리베럴리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행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간 협력도 가능하다고 간주함 (2) 다국간 인권보장, 경제, 환경, 인권, 핵무기 등을 중시함 (3) 국가를 주요한 행위자로 여기면서도 시민사회나 NGO 등의 역할도 중시함
--	---

「安全保障」「国家」「リアリズム」「リベラリズム」の用語の根源に触れ、複雑化する「安保」概念に対し、国内かつ国際関係におけるリベラリズム的思考や実践の意義を説明した。

‘안전보장’ ‘국가’ ‘리얼리즘’ ‘리베럴리즘’ 등 용어의 근원을 다뤄, 복잡해지는 ‘안보’ 개념에 대해 국내 및 국제관계에서의 리베럴리즘적 사고의 실천 의의를 설명했다.



視聴者やコメントの先生方からの質問に基調講演の先生を中心にお答えいただき、自由討論の時間はあっという間に感じられました。

시청자와 코멘트해주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기조강연자 선생님을 중심으로 답변이 이뤄져, 자유토론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平川 均先生（名古屋大学名誉教授/渥美国際交流財団理事
第 21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実行委員長）による総括のスピーチ

히라카와 히토시 선생님 (나고야대 명예교수 /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이사 /
제21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실행위원장)의 총괄 스피치



金雄熙先生（仁荷大学副学長）による閉会のご挨拶

김웅희 선생님(인한대 부총장)의 폐회사



今回のフォーラムではオンラインで120名以上の方にご視聴いただき盛会となりました。
ご参加くださいました皆さま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번 포럼에는 온라인으로 120명 이상의 분들이 시청해주시는 등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